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윤곽 나온다

7월 중간보고회…구간 경계조정 원칙·기준 제시

광주시가 오는 7월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중간보고회'를 여는 등 균형이 맞지 않는 광주지역 자치구 경계를 손본다. 일부 지역은 인구가 늘고 구도심은 주민 수가 급감하는 등 자치구간 격차가 커지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져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 수 유지 등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일부 주민 반발도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는 29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의 주요 윤곽이 오는 7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중간보고회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간 경계조정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와 경인행정학회가 맡았다.

보고회에서는 5개 자치구 발전실태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광주에 적합한 경계조정 원칙 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경계조정 방향 및 개선안 등 주요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각 자치구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효율적인 구간 경계를 다시 짜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일부 구간 경계조정 예상 대상지의 조정안도 제시될 수 있다. 용역기관은 최근 인구를 중심으로 행정동을 편입·제외하는 시안 몇 가지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중간보고회를 마치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를 검토해 오는 10월께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과 기초·광역의회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하고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밟는다.

경계조정은 날로 심화하는 도심 공동화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추진됐다. 실제,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구가 9만5791명으로 10만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가장 많은 북구(44만1066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자치구간 차이가 크다.

북구 한 해 예산은 4920억원가량이며, 동구 2388억원에 비해 2.06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무원 수도 북구가 1043명인데 반해 동구는 611명에 그치고 있다. 동구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동구청 조직도 점차 축소돼 공공서비스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인구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면서 "광주시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구간 경계조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계조정은 5개 자치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큰 폭인데다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 구간 경계조정 자체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또 행정 구역 변동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상당수여서 주민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전당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태위원회 총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MOWCAP)의 제8차 총회 개회식이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MOWCAP이 공동 주최,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며 다음달 1일까지 ACC 컨퍼런스홀 등에서 진행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가격 폭락에 병해까지 양파 재배농 '눈물'

이상저온 현상 3분의 1 피해
보리·밀 재배농도 곰팡이병

가격 폭락에 이어 병해까지 겹치면서 주산지인 전남지역 양파 재배 농민들이 겹시름에 빠졌다. 이상 저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잎마름병이 발생해 재배면적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리·밀 재배농가는 붉은곰팡이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 9627ha 중 33.1%인 3186ha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무안이 1747ha로 가장 많고 신안 520ha, 함평 500ha, 해남 250ha, 장흥 100ha, 영광 69ha 등이다. 보리·밀 등 맥류는 재배면적 1만5572ha 중 32.6%인 5070ha에서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했다.

품종별로 쌀보리 2856ha, 밀 1830ha, 맥주보리 384ha 등이다. 지역별로는 영광 1620ha, 보성 1500ha, 해남 1000ha, 함평 950ha의 농사를 망쳤다.

병해는 월동기 한파에 이은 4월초 이상저온,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고온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43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9㎜이나 많았다. 일조 시간은 평균 178.6시간으로 전년보다 46.7시간, 평년보다 61.5시간이나 적었다.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2011년 발생해 농작물 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양파 잎마름병은 이번처럼 넓게 퍼진 사례는 없었다. 재해로 인정되면 양파는 농약대 ha당 168만원, 대파(대체 파종)대 41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맥류에는 농약대 52만원, 대파대 26만6000원 지원을 전남도는 예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 선거현장 광주시장·교육감·구청장

이용섭, 인공지능 활용 청년일자리 개선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주요 현안 집중점검 투어' 열일곱 번째 행보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잡매칭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인공지능 잡매칭'은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한 역량검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후보는 "우선 올해 광주·전남 공동으로 역대 최대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웅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위기 극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9일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가 증가하는 전남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형 미래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전남형 미래학교'는 학교를 마을의 도서관, 체육관, 극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플랫폼 역할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델"이라며 "'미래형 지역공동체 학교'가 학생 교육을 넘어 도민들의 보건, 복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밤에는 지역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작은 학교는 폐교가 아닌 전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석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원 확대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9일 "맞벌이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전남교육청이 연간 250억원 가량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도 초등학교 1~2학년에다 전체의 70%인 16만여명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과후학교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해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20% 이상(연 50억 원 이상) 증액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위탁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인성 "순천, 4차산업혁명 체험특구 지정"

오인성 전남교육감 후보는 29일 "순천을 드론, 사물인터넷, AR, VR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체험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은 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래직업 변화에 발맞춰 일자리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순천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학부모 교육열도 높은데다 순천대학교, 순천만 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드론자격시험장 등 교육 인프라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무지개교육지구, 자유학년제 운영과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체험특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택, 충장로 상인 애로 청취 간담회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가 29일 충장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 후보는 "금남로·충장로 공실률은 2018년 현재 30%를 넘어섰는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구도심 침체는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충장로·금남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동구의 자영업 비율은 90% 가까이 이르는데,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곧 지역 경제와 동구를 살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동구 시니어테마센터 조성

김영우 바른미래당 동구청장 후보는 29일 "동구 시니어테마센터를 조성해 노인복지와 동구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구는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높아 어르신들을 위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시니어테마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고,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구에 고령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테마센터를 건립해 동구를 한국의 스가모로 재탄생시키겠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해 고령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구에 활기를 되찾아오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안전 북구 행복프로젝트 추진"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29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북구를 안심·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 북구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부터 자연재난 안전까지 생애주기별 안전매뉴얼을 작성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중장년층 대상 '안전리더 양성교실' 신설해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지역, 여성밤길 치안안전 등 생활안전지도 작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생활환경시설 점검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말바우시장에 맞춤형 지원센터 건립

이은방 민주평화당 북구청장 후보는 2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조성될 '말바우 시장' 주차장 부지에 가칭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센터를 통해 시장상인들의 교육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청년 쇼핑몰 입주공간 확보를 통해 말바우 시장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얼굴과 품목을 담은 지도를 작성해 말바우 시장을 처음 찾는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안내를 돕겠다"면서 "공모를 통해 창업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